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김미선**

〈차 례〉

- I. 머리말
- II.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의 시기별 현황
- III.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행했던 섬
- IV. 조선시대 섬 여행의 동기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살펴보았다. 섬 여행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48편이 발견되었으며, II장에서는 이를 시기순으로 정리하였다.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16세기 3편, 17세기 7편, 18세기 10편, 19세기 27편, 20세기 초 1편으로, 조선시대에 섬 여행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기행일기를 통해 선조들이 어떠한 섬을 여행했는지를 파악하였다. 2편 이상의 기행일기가 있는 섬은 남해도(13편), 제주도(11편), 강화도(7편), 국도(3편), 흑산도(3편), 금당도(2편), 우이도(2편)였다. 남해도와 강화도는 육지와 가깝고 역사적 의미까지 깊어 많이 찾았으며, 제주도는 관직이나 유배 관련하여 섬을 찾았던 사람들이 한라산 등을 유람함을 볼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기행일기를 통해 섬 여행의 동기를 파악하였는데, 조선시대 섬 여행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섬 유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본인의 관직이나 유배 때문에 섬에 가게 되고, 이때 인근을 여행한 경우가 있었다. 셋째, 관직이나 유배 때문에 섬에 있는 사람을 제3자가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 A5B5A02023757)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주제어] 섬 여행, 기행일기, 남해도, 제주도, 강화도

I. 머리말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을 여행했을까? 선조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선조들의 여행을 파악한 여러 연구가 있어왔다. 그런데 그 동안 산 여행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¹⁾ 섬 여행에 대해서는 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²⁾ 금강산, 지리산 등 명산을 유람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행 후 남긴 한시, 유키, 일기 등도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 1) 이상태 외 역,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1998;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최석기 외 역,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2007; 청량산박물관 편역,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III, 민속원, 2007~2012; 김대현 외,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박영호·김우동 역, 『국역 주왕산유람록』 I·II, 청송군, 2013~2014; 국립수목원,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강정화·황의열 편,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2016;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편, 『금강산유람록』 1~3, 민속원, 2016; 진송열·허경진 편역,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2016 등(이상 선집); 이혜순 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강정화 외, 『지리산 유람록의 이해』, 보고서, 2016 등(이상 연구서); 김순영, 『무등산 유산기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3; 이길규, 『鶴龍山 遊記의 研究 - 콘텐츠 活用方案 摸索을 겸하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6; 정지아, 『淸涼山 遊山錄과 智異山 遊山錄 比較 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6 등(이상 학위논문); 김대현, 『無等山 遊山記에 대한 研究』, 『남경 박준규박사 정년기념논총』, 남경 박준규박사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8; 강현경, 『鶴龍山 遊記에 대한 研究』, 『한국한문학회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김용남, 『조선후기 俗離山遊記에 나타난 산수관』, 『개신어문연구』 23, 개신어문학회, 2005; 권혁진, 『淸平山 遊山記 연구』, 『인문과학연구』 29,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순영,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국학연구론총』 13, 태민국학연구원, 2014 등(이상 소논문).
- 2) 남해도의 금산에 대한 유키를 연구한 정용수의 『조선조 산수유람문학에 나타난 <록> 체의 전통과 남해 錦山』(『석당논총』 25, 동아대 석당학술원, 1997), 제주도의 한라산에 대한 유키를 연구한 윤미란의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8)와 손오규의 『한라산 山水遊記의 산수문학적 연구』(『퇴계학논총』 26,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15), 김약행의 작품을 통해 당시 흑산도를 연구한 최성환의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등이 있지만, 섬 관련 일부 작품에 대한 연구로서, 산 여행에 대한 것처럼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그마저도 최성환 외에는 섬에 위치한 산만을 중점적으로 살펴 섬 여행보다는 산 여행에 집중되어 있다. 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입자도에 대해 연구한 정진영의 『섬, 소통의 공간-金樞의 『艱貞日錄』(1862~3)을 통해본 19세기 섬의 형상』(『역사와 경계』 88, 부산경남사학회, 2013), 『섬, 풍요의 공간-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입자도 생활』(『고문서연구』 43, 한국고문서학회, 2013)과 같이 의미 있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섬 여행이 아닌 섬에서의 유배생활 전반을 살핀 것이다.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섬 여행도 조선시대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므로, 이를 기록한 자료를 찾아 섬 여행을 파악하는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조선시대에 배를 타고 섬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더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기행일기 중 섬 여행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일기는 48편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기행일기 중 매우 적은 수이다.³⁾ 그러나 섬 여행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역설적이지 않다면 섬 여행을 보는 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기행일기 중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섬 여행을 볼 수 있는 자료 중에서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48편의 기행일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48편을 일기 기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섬 여행의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선조들이 여행했던 섬이 어디인지를, IV장에서는 섬 여행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조사,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살핀 첫 연구로서, 섬 여행을 기록한 일기자료를 제시하고 섬 여행의 면모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섬 여행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해서는 앞서 논한 바가 있다.⁴⁾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행일기는 별도로 분류하였고, 여정을 기록하였으나 유배, 강학 등이 중심인 일기는 각각 유배일기, 강학일기에 넣었으며,⁵⁾ 여정이 관료로서 공적인 임무에 의한 것일 때는 관직일기에 넣었다. 반대로 유배 중, 관직에 있던 중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유람을 간 내용만을 담고 있는 일기, 관직을 제수받기 위해서나 관직 생활이 끝난 후의 여정만을 담은 일기는 기행일기로 보았다.⁶⁾ 본 논문에

3)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는 1, 279편이다(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2019, 3쪽). 본 기행일기 조사는 한문일기만을 대상으로 하며, 서술의 편의상 ‘한문’을 생략하고 ‘조선시대 기행일기’ 또는 ‘기행일기’라고 언급할 것이다.

4)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5) 예컨대 朴海量の 『海上日記』(『聿修齋遺稿』 소제)의 경우 유배 중인 면암 최익현을 만나러 흑산도와 제주도에 찾아간 일을 기록하였지만, 가서 최익현에게 수학한 일이 중심이라 강학일기에 포함시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6) 金尙憲의 『南槎錄』은 안무어사로서 제주도에 갔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관직일기로 보아 본 연

서 제시한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II.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의 시기별 현황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현재까지 48편이 발견되었다. 이는 섬 여행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주도의 한라산, 남해도의 금산과 같이 섬에 위치한 산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경우는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잠깐 섬에 들른 경우, 표류의 과정에서 섬을 지나게 되는 경우는 섬 여행을 구체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파악한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시기별 수량은 다음과 같다.

<표 1>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시기별 수량

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초	합계
수량	3	7	10	27	1	48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시기별 수량은 전체적인 일기의 시기별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선시대 일기는 14~15세기부터 발견되나 그 수가 매우 적고 16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⁷⁾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6세기부터 발견되며, 일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19세기에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다. 본 기행

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그가 제주도에 있던 중 한라산을 유람하고 쓴 일기가 『臥遊錄』에 별도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행일기로 분류하여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 7) 조선시대 일기에 대해서는 황위주, 최은주가 수량을 제시하였다. 황위주는 조선시대 관청·공동체·개인의 일기 1,602편을 14세기 4편, 15세기 11편, 16세기 165편, 17세기 243편, 18세기 305편, 19세기 437편, 20세기 178편, 시기 미상 259편으로 정리하였고(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70쪽), 최은주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937편을 15세기 7편, 16세기 142편, 17세기 211편, 18세기 228편, 19세기 273편, 20세기초 27편, 시기 미상 49편으로 정리하였다(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화』 30, 대동한문화회, 2009, 12쪽).

일기 조사는 조선시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20세기는 1910년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1편만이 발견되었다.

이 48편의 기행일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기 기간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일기의 기간이 미상인 것은 각 세기의 마지막에 넣었다.⁸⁾ 여행한 섬의 경우 어느 지역에 있는 섬인지 알 수 있도록, 현재의 상위 행정구역까지 표기하였다.

<표 2>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목록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일기 기간	여행한 섬
1	金骨山錄	忘軒遺稿	李胄 (1468~1504)	1502년 9월	전라남도 진도
2	南溟小乘	白湖集	林梯 (1549~1587)	1577년	제주도
3	國島記	荷谷集	許錡 (1551~1588)	1585년 가을	강원도 통천군 국도
4	遊漢孛山記	臥遊錄	金尙憲 (1570~1652)	1601년 9월 24일~ 25일	제주도
5	遊國島錄	碧梧遺稿	李時發 (1569~1626)	1607년 윤6월	강원도 통천군 국도
6	遊漢孛山記	臥遊錄	金徽 (1577~1625)	1609년	제주도
7	泛海錄	記言	許穆 (1595~1682)	1638년 9월	경상남도 남해도
8	遊國島記	木齋集	洪汝河 (1621~1678)	1657년	강원도 통천군 국도
9	入島紀行	溪居遺稿	羅俊 (1608~1677)	1668년 4월 15일~ 4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 섬
10	遊金堂島記	梅壑集	徐鳳翎 (1622~1687)	1683년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도

8) 일기의 범위를 넓게 하여, 날짜 표기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일기로 보았다. 어디까지를 일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를 연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15~24쪽).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일기 기간	여행한 섬
11	遊漢拏山記	悔軒集	趙觀彬 (1691~1757)	1732년 4월	제주도
12	島遊記	檜巢集	金信謙 (1693~1738)	1733년 8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13	遊江都錄	斗庵集	金若鍊 (1730~1802)	1757년 9월	경기도 강화도
14	遊江都記	溪村集	李道顯 (1726~1776)	1757년	경기도 강화도
15	統行日記	西行錄	宋廷岳 (1697~1775)	1759년 4월 25일~ 5월 14일	경상남도 남해도
16	錦山觀海記	石堂遺稿	金相定 (1727~1788)	1760년 4월 11일	경상남도 남해도
17	遊大黑記	仙華遺稿	金若行 (1718~1788)	1770년 2월 10일~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18	遊豚項記	仙華遺稿	金若行 (1718~1788)	1771년 8월, 10월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19	遊小牛耳記	仙華遺稿	金若行 (1718~1788)	1771년 9월 25일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20	金塘島船遊記	存齋全書	魏伯珪 (1727~1798)	미상(18세기)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도
21	錦嶽聯勝錄	士農窩文集	河益範 (1767~1813)	1803년 9월 9일~ 19일	경상남도 남해도
22	遊錦山記	芝厓文集	鄭煒 (1740~1811)	1803년 9월	경상남도 남해도
23	西遊錄	好古窩集	柳徽文 (1773~1832)	1817년	경기도 강화도
24	遊錦山錄	率性齋遺稿	朴楨一 (1775~1834)	1824년 9월	경상남도 남해도
25	耽羅日記 上	浦上世稿	李源祐 (1790~1859)	1841년 3월 15일~ 4월 18일	제주도
26	耽羅日記 下 ⁹⁾	浦上世稿	李源祐 (1790~1859)	1841년 4월 17일~ 9월 7일	제주도

- 9) 이원호의 「탐라일기 상」과 「탐라일기 하」는 상, 하로 나뉘어 있으나 제목은 같다. 이 일기를 수록한 『포상세고』는 각 권별로 별도의 일기를 싣고 있는데 두 일기는 각각 다른 권에 수록되어 있고, 제주도로의 이동, 제주도 유람으로 내용이 구분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별도의 작품으로 정리하였다. 이원호 일기에 대한 해제와 전체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에도 별도의 일기로 정리되어 있다.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일기 기간	여행한 섬
27	南征錄	단일본	沈大允 (1806~1872)	1841년 10월~ 1842년 4월 1일	경상남도 남해도
28	歸程日記	浦上世稿	李源祐 (1790~1859)	1842년 3월 3일~ 11일	제주도
29	湖南紀行	直齋集	金翊東 (1793~1860)	1855년 7월 21일~ 8월 15일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
30	遊閑山島記	海藏集	申錫愚 (1805~1865)	1856년 4월 1일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
31	舟至穿島記	嵒堂集	李象秀 (1820~1882)	1856년	강원도 통천군 천도
32	南遊錄	柏後集	金基洙 (1818~1873)	1871년 9월 16일~ 10월 14일	경상남도 남해도
33	錦山記	淵齋集	宋秉璿 (1836~1905)	1872년 9월	경상남도 남해도
34	遊沁都觀海記	壺山集	朴文鎬 (1846~1918)	1874년	경기도 강화도
35	遊漢孛山記	勉菴集	崔益鉉 (1833~1906)	1875년 3월 27일	제주도
36	南行日記	단일본	崔永祚 (1859~?)	1876년 이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37	黑山錄	東海集	金勳 (1836~1910)	1878년 7월 1일~ 9월 11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38	江華日記	大溪文集	李承熙 (1847~1916)	1879년 3월 13일 ~20일	경기도 강화도
39	遊昇平記	淵齋集	宋秉璿 (1836~1905)	1882년 5월 2일~ 6월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
40	遊錦山錄	西扉文集	崔宇淳 (1832~1911)	1890년 8월 8일~ 17일	경상남도 남해도
41	錦山記行	端碕集	金麟燮 (1827~1903)	1892년 8월 27일~ 9월 17일	경상남도 남해도
42	漢孛山記	海隱文集	金義正 (1844~1916)	1895년 여름	제주도
43	南遊記行	一石遺稿	崔炳夏 (1839~1924)	1898년 8월 20일~ 9월 14일	경상남도 남해도
44	遊松家島普門寺記	文山集	李載毅 (1772~1839)	미상(19세기 추정)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송가도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	일기 기간	여행한 섬
45	遊摩尼山鼎足寺記	文山集	李載毅 (1772~1839)	미상(19세기 추정)	경기도 강화도
46	遊漢學山記	凝窩集	李源祚 (1792~1871)	미상(1841년~1843년 사이)	제주도
47	渡海記行	凝窩集	李源祚 (1792~1871)	미상(1841년~1843년 추정)	제주도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
48	南遊錄	靖窩集	朴海昌 (1876~1933)	1901년 4월 2일~19일	경상남도 남해도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섬 여행을 기록한 일기가 지속적으로 발견된 것은 조선시대에 섬 여행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섬 여행을 기록한 첫 일기는 1502년에 진도에 유배 중이던 이주가 진도의 금골산을 다녀간 일을 기록한 「금골산록」이다. 이후 1577년에 임제가 제주목사인 부친을 찾아 제주도에 간 일을 기록한 「남명소승」, 1585년에 유배를 마치고 돌아오던 허봉이 국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국도기」가 차례로 발견된다. 진도에 대한 기행일기는 이주의 작품만이 발견되며, 제주도와 국도에 대한 기행일기는 이후 더 나타난다.

17세기에 섬 여행을 기록한 일기는 7편으로 16세기 3편보다 수가 늘어난 만큼 여행한 섬도 늘어난다. 제주도, 국도에 대한 일기도 각각 2편씩 발견되고, 경상남도 남해도,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여러 섬,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도에 대한 일기가 발견된다. 남해도는 비교적 육지와 가까운 섬으로 남해도 기행일기는 이후 꾸준히 발견된다.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여러 섬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나준의 「입도기행」으로, 나주목사 李敏紱가 신안군 일대 섬의 기근을 구휼할 때 동행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나준이 관직에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행일기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등장한 섬은 자은도, 압타도, 비금도, 도초도, 구슬도, 태이도, 하의도, 반월도, 장산도, 안창도, 팔이도, 불무도, 압해도 등이다.

18세기에 섬 여행을 기록한 일기는 10편으로, 17세기보다 3편이 증가하였다. 제주도, 남해도, 금당도 기행일기가 또 등장하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경기도 강화도 기행일기를 처음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신안군 우이도에 유배 중이었던 김약행이 인근의 흑산도와 유배지 우이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가 3편 발견된다. 같은 저자의 일기이고 같은 문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작품으로 수록된 경우 별도로 구분하였다.

19세기에 섬 여행을 기록한 일기는 27편으로, 섬 여행을 기록한 일기의 56%에 이른다. 여행한 섬은 남해도, 강화도, 제주도, 흑산도 등 기존에 등장한 섬이 많으며, 새롭게 등장한 섬인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 강원도 통천군 천도,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 대한 일기가 각각 1편씩 있다. 그런데 천도의 경우는 금강산을 유람한 사람들이 많이 들렀던 곳인데, 배를 타고 직접 천도에 간 일을 기록한 것만 별도의 작품으로 전해진 경우로는 이상수의 「주지천도기」만이 발견되었다.

신안군의 섬이나 강화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이전에도 있었고 19세기에도 여러 편 발견되었다. 그런데 신안군 지도에 유배 중인 유치명을 뵈러 간 일을 기록한 김익동의 「호남기행」, 강화도 교동도의 부속섬인 송가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이재의의 「유송가도보문사기」가 있어, 여행한 섬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 2편 이상의 섬 기행일기를 남긴 사람으로 3편을 남긴 18세기 김약행이 있는데, 19세기에는 일기 수량이 많은 것에 비례하여 2편 이상의 섬 기행일기를 남긴 사람이 더 많다. 3편을 남긴 이원호, 2편을 남긴 송병선, 이재의, 이원조가 그러하다. 그런데 송병선 이외의 인물들은 여러 번 섬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여행을 다른 글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원호는 제주목사인 동생 이원조를 따라 제주도에 간 일, 제주도 안에서 유람한 일, 제주도에서 집으로 돌아간 일을 각각 일기로 남겨, 그의 일기는 모두 제주도 여행에 대한 것이다. 이재의는 강화도의 송가도 여행과 강화도 마니산 여행을 각각 다른 글로 남겨, 그의 일기는 모두 강화도 여행에 대한 것이다.

이원조는 3편의 제주도 기행일기를 남긴 이원호의 동생으로, 이원호가 제주도를 여행한 것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부임했기 때문이었다. 이원조 자신도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유람한 일을 별도의 글로 남겼고, 관직 생활을 마무리한 후 배를 타고 이동하여 완도군 보길도에 들어간 일 등을 기록한 일기를 별도로 남겼다. 이재의와 이원조의 일기는 정확한 연도가 나오지 않지만 연속된 여정을 두 편의 일기로 남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섬 여행을 기록한 20세기 일기는 1편으로, 1901년에 남해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박해창의 「남유록」이다. 조선시대 일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10년까지로 시기를 제한하였으며, 17세기부터 사람들이 꾸준히 찾은 남해도에 대한 여행을 마지막까지 볼 수가 있다.

Ⅲ.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행했던 섬

Ⅱ장에서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를 살피면서 각 세기별로 등장한 섬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기행일기에 등장한 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문일기로 섬 여행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 남성 이자 선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떠한 섬을 여행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48편을 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Ⅱ장에서 출전, 일기 저자, 일기 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섬별로 일기명과 저자를 간략히 기록하였다.

<표 3>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섬별 정리

지역	섬	일기 편수	일기명	저자	시기	비고	
강원도	통천군	국도	3	國島記	許簪	1585년	
				遊國島錄	李時發	1607년	
				遊國島記	洪汝河	1657년	
	천도	1	舟至穿島記	李象秀	1856년		

지역		섬	일기 편수	일기명	저자	시기	비고
경기도	강화군	강화도	7	遊江都錄	金若鍊	1757년	『유송가도보문사기』는 강화도 교동도의 부속섬인 송가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함.
				遊江都記	李道顯	1757년	
				西遊錄	柳徽文	1817년	
				遊沁都觀海記	朴文縞	1874년	
				江華日記	李承熙	1879년	
				遊松家島普門寺記	李載毅	19세기 추정	
				遊摩尼山鼎足寺記	李載毅	19세기 추정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13	泛海錄	許穆	1638년	
				統行日記	宋廷岳	1759년	
				錦山觀海記	金相定	1760년	
				錦嶽聯勝錄	河益範	1803년	
				遊錦山記	鄭煒	1803년	
				遊錦山錄	朴楨一	1824년	
				南征錄	沈大允	1841~1842년	
				南遊錄	金基洙	1871년	
				錦山記	宋秉璿	1872년	
				遊錦山錄	崔宇淳	1890년	
				錦山記行	金麟燮	1892년	
				南遊記行	崔炳夏	1898년	
				南遊錄	朴海昌	1901년	
	통영시	한산도	1	遊閑山島記	申錫愚	1856년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2	遊豚項記	金若行	1771년	
				遊小牛耳記	金若行	1771년	
		지도	1	湖南紀行	金翊東	1855년	
				遊大黑記	金若行	1770년	
		흑산도	3	黑山錄	金勳	1878년	
				南行日記	崔永祚	1876년 이후	
기타	1	入島紀行	羅俊	1668년	신안군 일대 여러 섬 여행		

지역	섬	일기 편수	일기명	저자	시기	비고	
	여수시	금오도	1	遊昇平記	宋秉璿	1882년	
	완도군	금당도	2	遊金堂島記	徐鳳翎	1683년	
				金塘島船遊記	魏伯珪	18세기	
	진도군	진도	1	金骨山錄	李胄	1502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11		南溟小乘	林梯	1577년	『渡海記行』은 제주도에 서 보길도로 가는 내용을 담은 것임.
				遊漢孛山記	金尙憲	1601년	
				遊漢孛山記	金緻	1609년	
				遊漢孛山記	趙觀彬	1732년	
				耽羅日記 上	李源祐	1841년	
				耽羅日記 下	李源祐	1841년	
				歸程日記	李源祐	1842년	
				遊漢孛山記	崔益鉉	1875년	
				漢孛山記	金義正	1895년	
				遊漢孛山記	李源祚	1841~ 1843년 사이	
				渡海記行	李源祚	1841~ 1843년 추정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1	島遊記	金信謙	1733년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행한 강원도 지역의 섬은 국도와 친도로, 각각 3편과 1편의 기행일기를 찾을 수 있었다. 국도는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육각 돌기둥을 묶어 세운 것처럼 보여 기이한 형상을 이룬 섬으로, 함경도 안변의 명승으로 알려졌다.¹⁰⁾ 함경도 안변과 강원도 통천은 인접한 지역으로, 국도는 조선 시대에는 행정구역상 함경도 안변에 속해있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지역인 이곳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통천군에 속해 있어¹¹⁾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정리하였다.

10) 박정혜, 『남승도로 본 조선 명승』, 『조선의 명승』,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67쪽.

11) '북한지역정보넷'의 '국도' 설명에 의하면 국도는 강원도 통천군 군산리의 북쪽 바다에 있는 섬이다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FiveGreatMountainDetail.aspx?mc=M20601&selMT=M201&id=BN010500032382&rightType=3&direct=1&direct=1>, 검색일 : 2019.4.22).

국도와 천도 모두 해금강 지역에 속한 빼어난 섬으로,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이곳도 함께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여하는 1657년에 국도를 여행하고 『유국도기』를 남겼는데, 같은 해에 금강산 여행을 기록한 『遊楓嶽記』도 문집에 남아 있다. 곧 그가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국도도 함께 여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수는 1856년에 금강산 일대를 여행한 일을 24편의 글로 남겼는데,¹²⁾ 위의 『주지천도기』는 그중 마지막 작품이다. 이상수 또한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천도를 여행하게 된 것이다. 금강산, 관동팔경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작품은 많지만 이렇게 섬 여행을 별도의 글로 정리한 것은 드물며, 섬 여행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행한 경기도 지역의 섬은 강화도로, 7편의 기행일기를 찾을 수 있었다. 강화도는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았다는 참성단이 있는 섬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섬이다. 이후 고려 때의 몽고 침입, 조선 중기의 병자호란, 조선 말기의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많은 전란 관련 역사 유적이 남아 있다.¹³⁾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이곳을 여행하고 싶어 하였고, 강화도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가 7편에 이르렀다.

강화도를 여행하고 남긴 기행일기를 통해 참성단, 정족산성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을 돌아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족산성에 올랐으니, 『麗誌』에서 전등산이라고 기재한 곳이다. 높고 뾰족한 것이 셋이므로 鼎足이라 한다. 일명 三郎이라 하니 세상에 전하기를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이 성을 쌓게 했다고 한다.¹⁴⁾

12) 『始登金水亭記』, 『禾積淵記』, 『東行山水記』, 『踰鐵嶺嶺記』, 『至長安寺記』, 『長安東明鏡臺記』, 『長安東靈源洞記』, 『誤尋百塔記』, 『宿靈源菴記』, 『長安北西抵表訓寺記』, 『表訓寺歇惺樓登眺記』, 『表訓北西須彌塔記』, 『表訓北萬瀑八潭記』, 『衆香城記』, 『楡店寺西隱仙臺記』, 『楡店寺舊聞記』, 『神溪寺西九龍淵記』, 『神溪西北萬物草記』, 『高城西望金剛外山記』, 『高城東海金剛記』, 『高城北三日湖記』, 『並海北行記』, 『通川北叢石記』, 『舟至穿島記』.

13) 강화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인의 『한국의 섬 - 인천광역시 경기도』(지리와 역사, 2017, 7쪽), 이형구의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새녘, 2017, 212~217쪽) 참조.

14) 李承熙, 『江華日記』, 『大溪文集』. “上鼎足山城, 乃麗誌所載傳燈山也. 其高而角者三, 故曰鼎足. 一名三郎, 世傳檀君, 使其三子, 築是城.”

우리 인조대왕 병자년(1636년)에 청인이 창졸간에 이르자 부체찰사 김경징, 유수 이민구가 달아났고 우리 왕자가 포로로 잡혔다. 금상 병인년(1866년)에 서양이 우리를 침입하여 유수 이인기가 달아났다.¹⁵⁾

위는 1879년에 강화도를 여행한 이승희의 『강화일기』 중 3월 16일 일기의 첫 부분, 3월 17일 일기의 중간 부분이다. 3월 16일에는 정족산성을 돌아보면서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이 성을 쌓게 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3월 17일에는 남산에 올라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김경징, 이민구가 달아나고 왕자가 포로로 잡힌 일, 병인양요 때 강화도로 침입 당한 일 등을 언급함을 볼 수 있다. 그는 강화도를 여행하면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고 그에 대해 언급하여, 그의 기행일기 속에는 단군왕검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강화도의 역사적 장소가 담겨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행한 경상도 지역의 섬은 남해도와 한산도이다. 한산도 기행일기는 1편에 불과한 반면, 남해도 기행일기는 13편에 이르러 우리나라 섬 중 가장 많은 기행일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만큼 남해도를 많이 찾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남해도는 유배인이 많고 그만큼 유배문화도 많은 지역이다. 조선시대 남해도로 유배된 인물은 200명 이상으로,¹⁶⁾ 한정호는 남해도를 “유배문화의 산실로서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지역”¹⁷⁾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도 여행도 유배 중이거나 유배 후 돌아가는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13편의 기행일기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배와 상관없이 남해도를 유람한 것이었다. 특히 남해도에 위치한 금산은 선비들이 남해도를 찾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15) 李承熙, 『江華日記』, 『大溪文集』, “至我仁廟丙子, 清人猝至, 副體察使金慶徵, 留守李敏求逃, 而我王子被虜, 今上丙寅, 西洋侵我, 留守李寅夔逃.”

16) 남해군지편찬위원회, 『남해군지』, 남해군지편찬위원회, 2010, 250쪽.

17) 한정호, 『유배문화의 산실, 南海島 - 김구, 김만중, 류의양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31,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335쪽.

무릇 금산의 경치는 온 나라에 소문나서 사람들이 모두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데, 내가 한번 가서 두루 살펴보았으니 마음과 눈이 모두 상쾌해졌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돌아오자 한바탕 꿈처럼 멍하였다.¹⁸⁾

금산은 남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금강이라고 부른다. 내가 일찍이 그 이름을 듣고 남쪽을 유람하려는 흥을 일으켜 노량을 건넜다.¹⁹⁾

위는 각각 정위 「유금산기」의 뒷 부분 중 일부, 송병선 「금산기」의 첫 부분이다. 정위는 1803년에 남해도 금산을 여행하였는데, 위에서처럼 금산 여행이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일기를 보면, 숙부와 남해도 금산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숙부의 병으로 함께 가지 못하자 혼자라도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어, 그가 진심으로 금산에 가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송병선도 위에서 보듯이 소금강이라고까지 부르는 금산을 유람하고 싶어 길을 떠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금산을 보고자 하고, 일기의 제목에서도 ‘금산’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들의 일기 속에는 금산을 오고가는 동안 남해도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여정도 담겨 있다. 특히 남해도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해전을 치른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1598년 이순신이 사망한 노량해전의 장소로, 정위와 송병선 모두 이순신 사당과 이순신이 순국한 곳을 찾고 감회를 표현한 것을 일기에서 볼 수 있다.²⁰⁾ 뛰어난 명산이 있고 역사적 의미도 있는 곳이기에 남해도는 조선시대에 많은 선비들이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섬 중에서는 강화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가 7편이 발견되었고, 경상도의 섬 중에서는 남해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가 13편, 한산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가 1편 발견되어 강화도, 남해도에 기행일기가 집중되었다. 조선시대에 여행한 전라도의 섬은 이러한 강화도, 남해도와는 상

18) 鄭煒, 『遊錦山記』, 『芝厓文集』, “夫錦山之勝, 聞於國內, 人皆願見而不得者, 吾能一出而遍覽, 心目俱爽. 庶遂平生之願, 而歸來悅然一夢矣.”

19) 宋秉璿, 『錦山記』, 『淵齋集』, “錦山, 在南海之中, 以小金剛名. 余嘗聞而起興南遊, 渡露梁.”

20) 경상도의 다른 섬인 한산도 여행을 기록한 일기 「유한산도기」의 첫 부분에서도 이순신을 언급한다.

황이 다르다. 전라도는 신안군의 우이도 기행일기 2편, 지도 기행일기 1편, 흑산도 기행일기 3편, 여수시의 금오도 기행일기 1편, 완도군의 금당도 기행일기 2편, 진도군 본섬 기행일기 1편 등 다양한 섬에 대한 기행일기를 찾을 수 있었다.

전라남도에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²¹⁾ 거리적으로 서울과 멀어 조선시대에 유배지로서 역할을 많이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호남 지역 유배인은 928명,²²⁾ 이중 전라남도 지역 유배인은 685명에 이른다.²³⁾ 육지와 멀었던 전라남도의 다양한 섬을 사람들이 여행하고 기행일기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유배와 관련이 크다. 나주목사를 따라 신안군 일대 여러 섬을 다녔던 나주의 일기와 금오도와 금당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를 제외한 다른 일기들은 모두 유배와 관련이 있다.

전라남도의 섬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에는 섬 유배 중에 잠깐 인근을 유람하거나, 섬에 유배 중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섬을 찾은 일을 기록한 일기들이 많았다. 전자에는 우이도 유배 중 인근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김약행의 「유돈항기」, 「유소우이기」, 김약행이 유배 중에 흑산도를 유람하고 쓴 「유대흑기」, 진도 유배 중에 이주가 금골산을 찾았던 일을 쓴 「금골산록」이 해당 되고, 후자에는 지도에 유배 중인 유치명을 만나기 위해 지도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김익동의 「호남기행」, 흑산도에 유배 중인 최익현을 만나기 위해 흑산도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최영조의 「남행일기」²⁴⁾와 김훈의 「흑산록」이 해당 된다. 최영조와 김훈은 각각 따로 최익현을 만나러 흑산도를 찾았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인 한라산과 빼어난 풍경을 가지고 있다. 설화문학의 보고라고도 불리는 이 섬은, 지형

21) 전국도서의 62%에 달하는 280개의 유인도와 1,689개의 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다(한국도서(섬)학회, 『전남의 섬』, 전라남도, 2002, 발간사 부분).

22)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전남대출판부, 2017.

23) 김대현·김미선,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와 문화콘텐츠」, 『한국시가문화연구』 4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65쪽.

24) 『금강일보』의 2018년 11월 14일 기사 「[유물로 본 충남 역사문화] ‘아버지의 그림자’, 운재 최영조의 남행일기(南行日記)」 참조(<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936#0Bjz>, 검색일 : 2019.4.6).

적으로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오랫동안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²⁵⁾ 그만큼 육지와 공간적, 문화적 거리가 있었던 곳으로, 조선시대에 그 먼 바닷길을 건너 제주도에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예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표해기록인 崔溥의 『漂海錄』, 張漢喆의 『漂海錄』은 제주도에 육지로 가기 위해 출항했다가 표류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11편이나 남아있다. 뱃길로 가기 힘든 먼 섬이기 때문에 유람 자체를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대신 본인이 관직 때문에 제주도에 있던 중 한라산을 유람한 일이나 체직되면서 뱃길로 떠나던 일을 기록한 일기, 가족이 관직 때문에 제주도에 가게 되자 가족을 만나러 제주도에 간 일을 기록한 일기들이 있었다. 전자에는 김상헌의 「유한라산기」, 김치의 「유한라산기」, 이원조의 「유한라산기」와 「도해기행」이 해당되며, 후자에는 임제의 「남명소승」, 이원호의 세 편의 일기가 해당되었다.

조관빈과 최익현은 1732년과 1875년에 각각 유배인으로서 제주도에 머물다가 한라산을 여행하고 일기를 남겼다.²⁶⁾ 김희정이 제주도 사람으로서 한라산을 유람하고 일기를 남긴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직이나 유배 관련하여 제주도를 찾게 되고, 명산이지만 찾아가기 힘든 산인 한라산을 여행함을 볼 수 있었다.²⁷⁾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행한 충청도 지역 섬은 안면도로, 1편의 기행일기를 찾았다. 김신겸이 1733년에 배를 타고 안면도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도유기」가 그것이다. 김신겸은 지인들과 아름다운 산수를 유람하는 것을 즐겨했던 인물로, 이 작품 외에도 문집에 기행일기 「會話遠心庵記」, 「遊北城

25) 소재영, 『濟州地域 說話 文學의 比較 研究』, 『송실어문』 11, 송실어문학회, 1994, 7쪽 참조.

26)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을 바탕으로 한 김대현·김미선의 정리에 의하면 제주도 유배인은 239명에 이르며(김대현·김미선, 앞의 논문, 65쪽), 이재언은 “조선왕조는 500년 동안 제주를 유배 1번지로 규정했을 정도로 1급 범죄자를 보냈다.”고 언급하였다(이재언, 『한국의 섬-제주도』, 지리와의사, 2017, 6쪽).

27) 한라산은 설화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재영은 “제주도는 타원형의 지형에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촌락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특히 한라산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다.”(소재영, 앞의 논문, 9쪽)고 언급하였다.

記」, 「遊朴淵記」, 「得聞韶洞記」, 「遊聞韶洞又得靑霞谷記」가 실려 있다. 특히 「도유기」는 다른 조선시대 기행일기들에서 볼 수 없는 안면도 여행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기행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행했던 섬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았다. 기행일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는 것으로, 2편 이상의 기행일기가 있는 섬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2편 이상의 기행일기가 있는 섬

섬	남해도	제주도	강화도	국도	흑산도	금당도	우이도
수량	13	11	7	3	3	2	2

경기도의 강화도, 경상남도의 남해도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이고 명산도 있어서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두 섬은 현대에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가 설치 될 정도로 육지와 가까운 곳이다. 배를 타는 거리가 가까워 위험성이 적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선비들이 더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는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라 찾아가기 힘든 곳이지만, 관직이나 유배 관련하여 섬을 찾았던 사람들이 한라산 등을 유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 금강산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찾았던 아름다운 섬 국도, 유배인을 만나기 위해 힘들게 찾아간 흑산도 등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행했던 섬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IV. 조선시대 섬 여행의 동기

조선시대에 섬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섬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²⁸⁾ 그럼에도 불

28) 이와 관련하여 김미선은 실기문학 속 바다를 보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직접 건너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으로서, 풍랑의 위험을 내포한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김미선,

구하고 섬 여행을 떠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살펴 본 결과 섬 여행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섬 유람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1638년 9월의 남해도 여행을 기록한 허목의 『범해록』부터 1901년 4월의 남해도 여행을 기록한 박해창의 『남유록』에 이르기까지, 유람을 위한 섬 여행을 기록한 일기는 꾸준히 나타나 25편에 이르렀다. 이를 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섬 유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경우

여행한 섬	일기 편수	일기명(저자명)
남해도	12	泛海錄(許穆), 統行日記(宋廷岳), 錦山觀海記(金相定), 錦嶽聯勝錄(河益範), 遊錦山記(鄭煒), 遊錦山錄(朴楨一), 南遊錄(金基洙), 錦山記(宋秉璿), 遊錦山錄(崔宇淳), 錦山記行(金麟燮), 南遊記行(崔炳夏), 南遊錄(朴海昌)
강화도	7	遊江都錄(金若鍊), 遊江都記(李道顯), 西遊錄(柳徵文), 遊沁都觀海記(朴文鎬), 江華日記(李承熙), 遊松家島普門寺記(李載毅), 遊摩尼山鼎足寺記(李載毅)
금당도	2	遊金堂島記(徐鳳翎), 金塘島船遊記(魏伯珪)
국도	1	遊國島記(洪汝河)
안면도	1	島遊記(金信謙)
제주도	1	漢孛山記(金義正)
천도	1	舟至穿島記(李象秀)

유람을 목적으로 섬을 찾을 때는 그 가는 과정이 다른 섬에 비해 어렵지 않아야 했을 것이다. 제주도, 신안의 흑산도와 같이 먼 바다를 건너 가는 것은 너무 큰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을 목적으로 한 섬 여행은 육지와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섬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섬의 규모가 크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남해도, 강화도에 집중되었다. 남해도 기행일기 13편 중 12편이, 강화도 기행일기 7편 전체가 섬 유람 자체를 목적으로 한 여행을 담고 있었다.

『실기문학 속 사실체험 공간으로서의 바다—『노송당일본행록』, 『표해록』, 『월봉해상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 4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6, 40쪽.

금당도도 완도군에 속하지만 고흥군 녹동항에 가까우며, 안면도도 현대에 연륙교가 생길 정도로 육지와 가깝다. 국도와 천도는 강원도 북쪽에 위치해 다른 지역 선비들이 찾는 게 쉽지 않지만, 섬 자체는 물에 가까운 작은 섬이다.

섬 유람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떠난 여행을 기록한 일기 중에는 제주도의 한라산 유람을 담은 김희정의 『한라산기』도 있다. 제주도는 유람만을 위해 가기에는 바닷길이 먼 섬으로, 김희정은 제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직이나 유배와 상관없이 비교적 쉽게 한라산 유람길에 오를 수 있었다.

유람을 목적으로 한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17세기 중반부터 발견할 수 있었으며, 25편에 이르러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 전체 48편의 절반이 넘었다. 이상균은 조선시대 유람문화를 연구하면서 국내 산수유기의 시기별 창작 수치를 15세기 13편, 16세기 41편, 17세기 272편, 18세기 373편, 19세기 402편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면서 17~18세기를 유람문화 정착기, 18세기 이후를 유람문화 보편기라 구분 지었다.²⁹⁾ 유람이 성행한 조선 후기의 상황 속에서 섬 여행도 활발해 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본인의 관직이나 유배 때문에 섬에 가게 되고, 이때 인근을 여행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섬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모두 13편으로,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본인의 관직이나 유배 관련하여 섬을 여행한 경우

섬 여행의 동기	일기 편수	일기명	저자	여행한 섬
본인의 관직	6	遊漢拏山記	金尙憲	제주도
		遊國島錄	李時發	국도
		遊漢拏山記	金徽	제주도
		渡海記行	李源祚	제주도, 보길도
		遊漢拏山記	李源祚	제주도
		遊閑山島記	申錫愚	한산도

29)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13, 17쪽.

본인의 유배	7	金骨山錄	李胄	진도
		國島記	許篈	국도
		遊漢拏山記	趙觀彬	제주도
		遊大黑記	金若行	흑산도
		遊豚項記	金若行	우이도
		遊小牛耳記	金若行	우이도
		遊漢拏山記	崔益鉉	제주도

본인의 관직 관련하여 섬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모두 6편인데, 제주도가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국도와 한산도가 1편씩이었다. 본인의 유배 관련하여 섬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모두 7편인데, 국도를 여행한 허봉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라남도과 제주도의 섬을 여행한 것이었다.

국도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경계에 위치한 섬으로, 이 한 곳만을 여행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본인의 일 때문에 그 인근을 가게 되었다면 이 아름다운 섬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것이다.

안변부 동쪽 바다 가운데 국도라는 섬이 있다. 매우 기이한 풍경으로 나라에 유명하였으니, ‘國’으로 섬 이름 삼은 것이 그 때문이었다. 내가 본디 기이한 것을 좋아하여 보고자 생각하였으나 인연이 미치지 못하였다. 을사년(1605년)에 관찰사로서 관북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정미년(1607년) 여름에 임기가 차 장차 돌아가려하면서 안변부를 지났다. 안변부사 김정택에게 “내가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부절을 반납하러 남쪽으로 가는 길인데, 함께 국도를 보러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김정택이 배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다.³⁰⁾

위는 이시발이 쓴 『유국도록』의 첫 부분으로 국도 여행을 어떻게 가게 되는

30) 李時發, 『遊國島錄』, 『碧梧遺稿』. “安邊府東, 有島海中, 曰國島, 以奇絕名於國, 島以國名, 其以此歟. 余本好奇, 思見之未有因. 歲乙巳, 按節關北, 丁未夏, 秩滿將歸, 歷安邊府. 謂府伯金君景擇曰, 余已瓜熟, 納節南歸, 盍與往觀所謂國島者乎. 金君曰, 當具船焉.”

지를 볼 수 있다. 이시발은 관북 지역 관찰사로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안변부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국도를 여행하게 되는 것이다. 허봉은 함경도 갑산에서 유배생활을 하다 해배되어 돌아오는 길에 국도를 여행하고 『국도기』를 남긴다. 이름난 섬으로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국도라는 섬을, 그 인근을 지나면서 여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워낙 먼 섬이기 때문에 관직이나 유배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가 한라산을 유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아래는 본인의 유배로 인해 제주도에 갔다가 한라산을 유람한 조관빈, 최익현 작품의 일부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라산은 제주에 있는데 신선이 사는 산이라 부른다고 들어왔다. 일찍이 한번 유람하고자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넓은 바다가 막고 있어 험난하고 멀어서, 평상시에 목을 빼고 기다려도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³¹⁾

을해년(1875년) 봄에 나라의 특별한 은전을 입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마침내 한라산을 찾을 계획을 정하고, 사인 이기남에게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일행은 어른이 10여 명에 중 5~6인이 따랐으며, 출발 시기는 3월 27일이었다.³²⁾

첫 번째 인용문은 조관빈의 『유한라산기』의 첫 부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라산에 대해 듣고 유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과 제주도 바닷길이 너무 멀고 험해 갈 수 없었다는 현실이 담겨 있다. 조관빈뿐 아니라 이러한 마음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먼 바다 너머 섬에 있어 가기 힘든 한라산이지만, 관직이나 유배로 인해 제주도에 가게 되면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조관빈은 1731년 가을에 제주도로 유배 간 직후부터 한

31) 趙觀彬, 『遊漢孛山記』, 『梅軒集』, “余自少時, 已聞漢孛在耽羅, 以仙山稱, 嘗有一遊之願, 而大海間之, 險且遠, 居常引領, 如在天上, 非人人所可到也.”

32) 崔益鉉, 『遊漢孛山記』, 『勉菴集』, “乙亥春 適以特恩出棘 遂定尋眞計 約士人李琦男 前進指路 冠者十餘 下隸五六踵焉 時三月二十七日甲子也.”

라산에 오르코자 하나 제주도 사람들이 4월 이전에는 산 속이 추워 오를 수 없다하여 기다린다. 그리고 다음해 3월 말에 약속을 잡았다가 비로 인해 3일을 기다린 후 4월 1일에 마침내 산에 오르게 된다.

최익현도 유배로 인해 제주도에 가게 되고 한라산에 오르지만 조관빈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인다. 그는 1873년 겨울에 제주도에 유배되었으나 유배생활 중에는 한라산을 유람하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과 같이 1895년 봄에 해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한라산 유람길에 오르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의 한라산 여행도 유배로 인해 제주도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셋째, 관직이나 유배 때문에 섬에 가 있는 사람을 제3자가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섬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모두 7편으로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관직이나 유배 때문에 섬에 있는 사람을 제3자가 방문한 경우

섬 여행의 동기	일기 편수	일기명	저자	여행한 섬
관직으로 인해 섬에 있는 사람 방문	4	南溟小乘	林梯	제주도
		耽羅日記 上	李源祐	제주도
		耽羅日記 下	李源祐	제주도
		歸程日記	李源祐	제주도
유배로 인해 섬에 있는 사람 방문	3	湖南紀行	金翊東	지도
		南行日記	崔永祚	흑산도
		黑山錄	金勳	흑산도

이는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직과 유배 관련하여 섬에 가게 된 것이지만, 본인의 관직이나 유배가 아니라 가족이나 스승이 관직이나 유배로 인해 섬에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만나러 섬에 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직으로 인해 섬에 있는 사람을 제3자가 방문한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4편으로 모두 제주도를 찾아간 일을 기록하였다. 임제는 아버지가, 이원호는 동생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으므로 제주도에 가게 되었다.

동짓달 초사흘, 맑음. 제주도로 아버지를 뵈러 가려고[榮觀] 아이종을 시켜 행장을 꾸리는데, 단지 어사화 두 송이, 거문고 한 벌, 보검 한 자루를 챙겨 넣었을 뿐이었다. 부친이 기르시던 호총마를 타고 풍포 고향 마을을 떠나 무안 땅의 중수 형남택에 묵었으니, 미리 약속하고 모인 것이었다.³³⁾

위는 임제 『남명소승』에 기록된 첫날 일기의 전문이다. 임제가 제주도로 가는 이유는 ‘榮觀’, 즉 榮達하여 부모님을 뵈기 위해서로 그의 영달은 과거 급제를 의미한다. 몇 안 되는 집에 과거 급제자에게 임금이 내려주는 어사화 두 송이가 있다는 것에서도 그가 과거에 급제한 후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먼 제주도까지 찾아감을 알 수 있다. 『남명소승』은 위의 1577년 11월 3일 일기를 시작으로 4개월 여의 여정을 기록하며,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도의 다양한 곳에 대한 여행을 볼 수가 있다.

유배로 인해 섬에 있는 사람을 제3자가 방문한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3편으로 모두 전라남도 신안의 섬을 찾아간 일을 기록한 것이다. 김익동은 지도에 유배 중인 유치명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고, 최영조와 김훈은 흑산도에 유배 중인 최익현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 중 최영조는 최익현의 아들로서, 유배 중인 아버지를 뵈기 위해 섬을 찾게 된 것이다.

본인이 유배가 되었던 유배 간 사람을 만나러 갔든 상관없이 유배 관련 섬 여행을 담은 기행일기는 16세기 일기인 이주의 『금골산록』과 허봉의 『국도기』 외에는 18~19세기의 일기이며, 모두 전라남도과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전라남도에 속했던 섬으로, 김정옥은 전라남도 유배인 추이를 살피면서 제주도도 포함하였으며, 전남 지역 유배인의 추이는 18~19세기에 무려 70%를 점유하고 있고, 이 시기는 서남해 도서 지역의 인구가 급증한 시기라고 하였다.³⁴⁾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19세기에 유배 관련 하여 전라남도의 섬과 제주도를 선비들이 여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33) 林悌, 『南溟小乘』, 『白湖集』. “至月初三日, 晴. 將榮觀于齊州, 使小溪束裝, 祇有宮花兩朶, 玄琴一張, 寶劍一口而已. 乃騎父親留養胡驄馬, 向晚離發楓浦, 投宿于務安仲遂兄家, 期而會也.”

34) 김경옥,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0, 호남학회, 2010, 24쪽.

기행일기에 나타난 섬 여행의 동기는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나주목사가 섬의 기근을 구휼할 때 동행하여 신안군 일대 섬을 찾아간 일을 기록한 나준의 「입도기행」, 남해도에서의 생활과 금산 유람, 반장의 과정 등을 기록한 심대윤의 「남정록」, 녹혈을 복용하기 위해 금오도를 찾은 일을 기록한 송병선의 「유승평기」가 그것이다. 적은 수량이지만 이러한 일기를 통해 섬 여행의 특별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다.

V. 맺음말

본 논문은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종합적으로 살핀 첫 연구로서, 섬 여행을 기록한 일기자료를 제시하고, 조선시대 섬 여행의 대략적인 면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섬 여행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는 48편으로, Ⅱ장에서는 이를 시기순으로 정리하였다.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16세기 3편, 17세기 7편, 18세기 10편, 19세기 27편, 20세기초 1편으로 확인되었다. 20세기는 1910년까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1편만을 찾을 수 있었다. 1502년 진도에 유배 중이던 이주가 기록한 「금골산록」부터 1901년 박해창이 남해도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남유록」까지 꾸준히 기행일기가 발견되어, 조선시대에 섬 여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기행일기를 통해 선조들이 어떠한 섬을 여행했는지를 파악하였다. 2편 이상의 기행일기가 있는 섬은 남해도(13편), 제주도(11편), 강화도(7편), 국도(3편), 흑산도(3편), 금당도(2편), 우이도(2편)로, 조선시대에 이와 같은 섬을 많이 여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남해도와 강화도는 육지와 가깝고 역사적 의미까지 깊어 많이 찾았으며, 제주도는 관직이나 유배 관련하여 섬을 찾았던 사람들이 한라산 등을 유람함을 볼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기행일기를 통해 섬 여행의 동기를 파악하였는데, 조선시대 섬

여행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섬 유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본인의 관직이나 유배 때문에 섬에 가게 되고, 이때 인근을 여행한 경우가 있었다. 셋째, 관직이나 유배 때문에 섬에 있는 사람을 제3자가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었다.

유배나 관직 관련하여 섬을 여행한 일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16세기부터 발견되었다. 그런데 유람을 목적으로 한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17세기 중반부터 발견할 수 있었으며, 25편에 이르러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 전체 48편의 절반이 넘었다. 유람이 성행한 조선 후기의 상황 속에서 섬 여행도 활발해 졌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조선시대 기행문학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주고, 기행문학사를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산 여행을 기록한 일기에 비해 작품 수는 적지만 강원도의 국도, 경기도의 강화도, 경상도의 남해도, 전라도의 여러 섬, 제주도 등 그 공간은 한반도 곳곳에 걸쳐 있다. 또 조선시대에 가기 힘들었던 섬이라는 공간에 대한 여행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행문학의 공간을 넓혀 주고 내용적으로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둘째,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는 조선시대 섬 공간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조선시대 섬 생활을 기록한 일기로는 임자도 유배생활을 기록한 김령의 『간정일록』, 안무어사로 제주도에 있었을 때의 일을 기록한 김상헌의 『남사록』과 같은 유배일기, 관직일기가 있다. 여기에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가 더해진다면, 조선시대 섬 공간을 볼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배인, 관인, 여행자의 섬을 보는 다양한 시선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를 최대한 조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누락된 일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로 제한하여, 한시, 풍토록 등 다른 글들은 보지 못하였으며, 섬 여행을 기록한 기행일기의 문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로 남겨둔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조선시대 섬 여행 연구, 기행문학 연구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金相定, 『石堂遺稿』, 국립중앙도서관.
 金麟燮, 『端溪集』, 미디어한국학.
 金勳, 『東海集』, 국립중앙도서관.
 金基洙, 『柏後集』, 남명학고문헌시스템.
 金信謙, 『檜巢集』, 한국고전종합DB.
 金若鍊, 『斗庵集』, 한국고전종합DB.
 金翊東, 『直齋集』, 한국고전종합DB.
 羅俊, 『溪居遺稿』, 국립중앙도서관.
 柳徽文, 『西遊錄』,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李象秀, 『嶠堂集』, 국립중앙도서관.
 李承熙, 『江華日記』,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李時發, 『碧梧遺稿』, 한국고전종합DB.
 李源祚, 『凝窩集』, 한국고전종합DB.
 李源祐, 『浦上世稿』,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李載毅, 『文山集』, 한국고전종합DB.
 朴楨一, 『率性齋遺稿』, 국립중앙도서관.
 朴海昌, 『靖窩集』, 한국고전종합DB.
 徐鳳翎, 『梅壑集』, 미디어한국학.
 宋秉璿, 『淵齋集』, 한국고전종합DB.
 宋廷岳, 『統行日記』, 호남기록문화유산.
 申錫愚, 『海藏集』, 한국고전종합DB.
 李道顯, 『遊江都記』,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鄭煒, 『芝厓文集』, 한국고전종합DB.
 趙觀彬, 『梅軒集』, 한국고전종합DB.
 崔炳夏, 『一石遺稿』, 국립중앙도서관.
 崔宇淳, 『西扉文集』, 국립중앙도서관.
 崔益鉉, 『勉菴集』, 한국고전종합DB.
 沈大允, 『南征錄』, 호남기록문화유산.
 河益範, 『錦嶽聯勝錄』,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許穆, 『記言』, 한국고전종합DB.
 許籟, 『荷谷集』, 한국고전종합DB.
 洪汝河, 『木齋集』, 한국고전종합DB.
 김약행, 『仙華遺稿』, 교민, 2005.
 임제 저, 신호열·임형택 역, 『譯註 白湖全集』 하, 창작과비평사, 1997.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臥遊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 민창문화사, 1996.

오문복, 『제주도명승』, 제주문화원, 2017.

국립수목원, 『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1~5, 한국학술정보, 2013~2016.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남해군지편찬위원회, 『남해군지』, 남해군지편찬위원회, 2010.

이재언, 『한국의 섬 -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리와 역사, 2017.

_____, 『한국의 섬 - 제주도』, 지리와역사, 2017.

이형구,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 새녘, 2017.

정치영 외, 『조선의 명승』,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한국도서(섬)학회, 『전남의 섬』, 전라남도, 2002.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전남대출판부, 2017.

김경옥,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2010, 1~45쪽.

김대현·김미선, 「호남유배인의 문헌자료와 문화콘텐츠」, 『한국시기문화연구』 41, 한국시기문화학회, 2018, 57~88쪽.

김미선, 「실기문학 속 사실체형 공간으로서의 바다 - 『노송당일본행록』, 『표해록』, 『월봉해상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 4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6, 35~62쪽.

_____, 「조선시대 기행일기의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417~450쪽.

_____,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2019, 3~36쪽.

소재영, 「濟州地域 說話 文學의 比較 研究」, 『송실어문』 11, 송실어문화회, 1994, 7~34쪽.

손오규, 「하리산 山水遊記의 산수문학적 연구」, 『퇴계학논총』 26,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15, 315~348쪽.

윤미란, 「조선시대 하리산 遊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8, 1~89쪽.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13, 1~291쪽.

정용수, 「조선조 산수유람문학에 나타난 <록> 체의 전통과 남해 錦山」, 『석당논총』 25, 동아대 석당학술원, 1997, 117~154쪽.

정진영, 「섬, 소통의 공간 - 金樞의 『艱貞日錄』(1862~3)을 통해본 19세기 섬의 형상」, 『역사와 경계』 88, 부산경남사학회, 2013, 151~188쪽.

_____, 「섬, 풍요의 공간 - 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임지도 생활」, 『고문서연구』 43, 한국고문서학회, 2013, 233~262쪽.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詔>를 통해 본 조선 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139~177쪽.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화회, 2009, 5~40쪽.

한정호, 「유배문학의 산실, 南海島 - 김구, 김만중, 류의앙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31,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335~355쪽.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63~797쪽.

『금강일보』, 『[유물로 본 충남 역사문화] '아버지의 그림자', 운재 최영조의 남행일기(南行日記)』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936#0Bjz>) 검색일 : 2019.4.6.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검색일 : 2019.4.5.

남명학교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검색일 : 2019.4.5.

미디어한국학(<http://www.mkstudy.com/>) 검색일 : 2019.4.5.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검색일 : 2019.4.22.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 : 2019.4.5.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diary.ugyo.net/>) 검색일 : 2019.4.5.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co.kr/>) 검색일 : 2019.4.5.



Joseon-era travel diaries focused on island travel

Kim, Mi-Sun*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Joseon-era travel diaries focused on island travel. Joseon-era travel diaries focused on island travel were found to number 48 pieces. Chapter II presents the chronological order thereof. They consisted of 3 pieces from the 16th century, 7 pieces from the 17th century, 10 pieces from the 18th century, 27 pieces from the 19th century, and 1 piece from the 20th century, revealing that Joseon-era island travels continued.

Chapter III determines which islands our ancestors traveled as found in travel diaries. Islands that were covered twice and more by travel diaries include Namhaedo(13 pieces), Jejudo(11 pieces), Ganghwado(7 pieces), Gukdo(3 pieces), Heuksando(3 pieces), Geumdangdo(2 pieces), and U-ido(2 pieces). Namhaedo and Ganghwado are closer to the land and historic so that they were travelled significantly. Jejudo were visited by people relating to office assignment or exiles, and while in Jejudo, they travelled Mount Halla, etc.

Chapter IV determines the reason of island travels through travel diaries. Joseon-era island travel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island trip itself was sought. Second, the traveller himself visited the island due to office assignment or exile, and while staying there, they travelled around the island. Third, while the person was in the island due to office assignment or exile,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thers visited them there.

Key Words : Island travel, travel diary, Namhaedo, Jejudo, Ganghwado

K C I

КСІ